

기획논문

백제 한성기 토기 훼손(毀棄) 행위의 특징과 의미

이희경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선임연구원, 고고학 전공

cielbleuhk@naver.com

국문초록

본고는 백제 한성기 경기지역 유적을 대상으로 토기 훼손의 맥락, 절차, 대상 및 의미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훼손은 백제 중심부에서 4세기 중엽 이후 본격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백제에서 정치·경제적으로 중요한 맥락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훼손 대상은 제기류·저장용기·자비용기로 구분되는데, 제기류는 도성 중심부 및 국가적 저장 유적에서 주로 확인되고, 저장용기는 우물과 무덤에서 나타나는 반면, 자비용기는 드물게 확인되었다. 의례 절차는 풍납토성 경당지구와 석촌동 고분군에서 확인되는 공음공식·봉헌·희생·소각이 결합된 복합 의례에서부터, 플라스크형 수혈 유적에서 나타나는 토기 훼손 중심의 종결 의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아울러 훼손의 의도 역시 유적의 성격에 따라 의례의 종결, 재사용 차단, 부정 방지, 권위 과시, 참여자 간 관계 형성 등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제어 토기, 훼손, 백제 한성기, 경기지역, 의례

투고일 2026. 6. 30. 심사일 2026. 8.22. 게재 확정일 2026. 8. 27.

Special Issue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of Pottery Destruction in Hanseong-period Baekje

Lee, Huikyung

Senior Researcher, Institute of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cielbleuhk@naver.com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contexts, procedures, vessel types, and meanings of pottery destruction at sites in the Gyeonggi region during the Hanseong period of Baekje. This practice appears to have become prominent in the Baekje core area after the mid-fourth century and was selectively conducted in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important contexts. Destroyed vessels are categorized into ritual, storage, and cooking vessels. Ritual vessels are found mainly in the capital core and at state-associated storage sites, while storage vessels are found primarily in wells and tombs; cooking vessels are rare. Ritual procedures ranged from complex ceremonies involving commensality, offerings, sacrifice, and burning at Pungnapdoseong Fortress and the Seokchon-dong tomb complex to termination rituals centered on pottery destruction in settlements with flask-shaped storage pits. The meanings of the practice vary by context and include ritual termination, prevention of reuse, protection against impurities, the display of authority, and the formation of social relationships.

Keywords: pottery, pottery destruction, Hanseong-period Baekje, Gyeonggi region, ritual

Received Jun30, 2026 Reviewed August 22, 2026 Accepted August 27, 2026

I. 서론

본고의 목적은 백제 한성기 경기지역을 대상으로 토기 훼손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훼손 행위의 종교적·정치적·사회적 의미를 고찰하는 데 있다.

고고학 유적에서 토기의 파편화는 보편적 현상으로, 대부분의 토기는 사용 중 우연히 파손되거나 유적 형성 과정에서 훼손된 상태로 발견된다. 하지만 일부는 의도적으로 훼손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훼손(毀棄)은 특정한 의례적 맥락이나 절차와 결합하여 종교적·정치적·사회적 의도를 반영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훼손 양상 자체뿐만 아니라 훼손이 이루어진 맥락 전반을 검토하는 일은 당시 의례의 성격, 물질의 처리 방식, 나아가 그에 내포된 정치·사회적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고대 한반도에는 고구려, 신라, 가야, 마한 등 여러 정치체에서 토기 훼손이 확인되며, 이에 따라 관련 연구들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신라와 마한의 경우 훼손 자체에 대한 구체적 연구가 시행되면서, 주요 대상과 출토 맥락, 지역적 특징 등이 파악된 바 있다.¹ 반면, 백제의 경우 다른 정치체에 비해 훼손 사례가 드문 편이며, 이에 따라 관련 연구도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백제 한성기의 국가 의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훼손 행위가 다루어진 바 있으나,² 연구 목적과 대상의 특성상 제한적인 검토만 진행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성기 경기지역의 백제 유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³ 훼손

※ 이 논문은 2025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기초연구 공동연구과제로 수행된 연구임 (AKSR2025-C08).

1 권용대, 「慶州·蔚山地域의 三國時代 毀損土器 研究」, 『호서고고학』 16(2007); 노미선·강병선, 「영산강유역 호형토기의 조업과 훼손 연구: 광주 평동유적 분구묘 출토품을 중심으로」, 『야외고고학』 14(2012).

2 정수옥, 「백제 한성기 국가의례와 의례용기 그리고 음식의 공헌-풍납토성 출토 유물을 중심으로」, 『백제문화』 63(2020), 14~17쪽.

3 본고에서 말하는 경기지역은 북으로 임진·한탄강 유역에서 남으로 안성천 유역에 이르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일대를 포괄하는 공간적 범위를 의미한다. 한성기 백제와 관련된 유물의 분포 범위는 이보다 넓게 나타나지만, 본고에서는 지면의 한계를 고려하여 경기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경기지역 유적 가운데서 마한 또는 예(濊)계 문화와의 관련성이 강한 사례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기의 맥락과 대상, 연동된 절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훼손 행위의 종교적·정치적·사회적 의미를 고찰함으로써 백제 한성기 훼손의 성격을 이해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과 대상

고고학 유적에서 출토되는 다수의 파손 토기 가운데 의도적으로 훼손된 자료를 판별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특히 모든 자료를 직접 관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훼손기는 특정 부위가 반복적으로 파손되거나 분리되는 등 일정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점을 토대로 훼손 자료를 판단할 수 있다. 『한국고고학사전』에 따르면, ‘훼손’은 인위적으로 기물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토기의 구연이나 대각 일부를 결손시키거나 파쇄하는 행위, 기대(器臺)를 잘게 부수어 뿌리거나 매납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백제 한성기 유적 가운데서도 토기의 구연부를 타절하거나, 고배·삼족기·뚜껑처럼 여러 부분으로 구성된 기종에서 배신과 대각, 꼭지 등을 분리하는 등 훼손의 정의에 부합하는 자료들이 확인·보고되었다. 더욱이 이러한 양상은 대체로 단일 유적 내에서 복수의 토기에 반복적으로 확인되는데, 이 경우 의도적 훼손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처럼 특정 부위가 반복적으로 파손되어 의도적 훼손 가능성이 다수 언급된 사례들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하지만 훼손 사례가 소수만 확인되거나 전면적 파쇄 형태로, 훼손 가능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러한 자료 역시 훼손의 전반적인 양상을 이해하는 데 의미를 가지므로, 본고에서는 명확한 훼손 자료와 유사한 맥락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특정 공간에 파편이 집중되거나 일반적인 폐기와 구별되는 배치·매납 양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훼손 가능 사례로 함께 검토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본고에서는 총 11개 유적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경기 지역의 여러 유적을 검토하였으나, 비교적 명확한 훼손 증거가 확인되면서 개별

토기의 정확한 출토 지점과 퇴적 맥락까지 파악되는 유적은 11개에 불과하였다.⁴ 이 가운데 풍납토성 경당지구의 여러 유구, 방이동, 석촌동 고분군, 플라스크형 수혈 조성 취락은 복수 토기에서 반복적이고 정형적인 파손 흔적이 확인되어 명확한 훼손 사례로 판단되었다. 반면 몽촌토성 85-2호 토광, 내손동의 우물 및 수혈, 감일동 유적은 조사자에 의해 의도적 훼손 가능성이 추정되었지만, 사례 수가 적거나 전면 파쇄 양상으로 나타나 훼손 판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일부 토기에서 정형적인 훼손 흔적이 확인되고, 훼손 사례가 비교적 빈번한 우물·수혈·무덤이라는 출토 맥락과 성격 및 의도적 집적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훼손 가능성이 높은 사례로 판단하였다.

연구 대상은 출토 맥락에 따라 크게 도성 중심부 유구, 취락 유구, 분묘 관련 유구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도성 중심부 유구는 풍납토성과 몽촌토성 내부에서 확인된 비분묘성 유구를 지칭하며, 취락 유구는 성곽 외부의 취락에서 확인된 자료를 의미한다. 분묘 관련 유구는 무덤 내부뿐만 아니라 무덤의 조성 및 매장 의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맥락까지 포함한다. 석촌동 고분군과 감일동 유적은 피장자 집단의 성격과 위계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 확인되는 훼손 사례가 많지 않고 모두 매장 의례와 관련된 맥락이라는 점에서 함께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자료를 대상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였다. 먼저 훼손 토기가 출토되는 각 유적 및 유구의 양상과 출토 유물을 검토하고, 훼손 대상이 된 토기의 기종을 파악하였다. 이 과정에서 토기뿐만 아니라 동식물유존체, 조각 흔적, 유물의 배치와 매장 양상 등을 함께 검토하여 훼손이 음식 봉헌·공음 공식(共飮共食)·조각·매납 등 어떠한 의례적 절차와 결합하였는지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개별 사례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백제 한성기 토기 훼손이 어떠한 맥락에서 나타나며, 맥락의 성격에 따라 어떠한 의례적 절차와 연동되었는지를 검토하였다. 아울러 출토 맥락에 따라 훼손 대상 기종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도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 결과와 훼손의 의미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백제 한성기 토기 훼손의 종교적·정치적·사회적 의미를 고찰하였

4 개별 토기의 정확한 출토 지점·퇴적 맥락이 분명하지 않아 본고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군사적 거점이라 할 수 있는 소근산성에서도 토기 훼손이 빈번하게 확인되었다.

다. 이때 훼손의 의미를 단일하게 규정하기보다, 출토 맥락과 훼손 대상, 훼손이 이루어진 행위 단계 및 관련 의례 절차에 따라 그 성격과 의도가 달라질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Ⅲ. 도성 중심부 유구의 훼손 사례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에서 모두 훼손 행위가 확인되며, 가장 훼손이 빈번하게 확인되는 맥락이다. 풍납토성의 경우 9호·31호·101호·127호·206호 유구에서, 몽촌토성의 경우 85-2호·3호·5호·10호 유구에서 훼손이 언급된 것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이다.⁵ 다만 이 가운데 풍납토성 101호나 몽촌토성 3호·5호·10호는 보고서상에서 훼손 양상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1. 풍납토성

풍납토성에서 훼손 관련 자료가 확인되는 유구는 모두 경당지구에 위치하며 공간적으로 밀집해 있다. 9호와 31호는 서로 평행하게 배치된 수혈 유구이며, 206호 우물은 이들로부터 약 60m 거리를 두고 동쪽에 위치한다. 그리고 그 인근에서는 127호 수혈이 확인된다.

1) 9호·31호 유구

9호⁶·31호⁷ 유구는 의례 행위와 관련된 수혈 유구로, 규모와 출토 유물의 구성에서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장축이 각각 13.5m와 5.2m에 달하여 비교적 대형에 속하며, 공통적으로 고배·삼족기 등 제기류의 비율이 높고 동물유존체가 출토된다.

5 권오영·한지선, 「의왕시 일괄 출토 백제토기에 대한 관찰」, 『吉城里土城』(오산: 한신대학교 박물관, 2003), 171쪽.

6 한신대학교 박물관, 『풍납토성 IV: 경당지구 9호 유구에 대한 발굴보고서』(2004).

7 한신대학교 박물관, 『풍납토성 VII: 경당지구 상층 폐기장 유적에 대한 발굴보고서』(2006).

특히 9호에서는 마형 토우와 ‘大夫’·‘井’ 등이 새겨진 직구단경호, 9개체에 해당하는 말 두개골과 탄화 복숭아 핵 등이 함께 출토되어 의례적 성격이 뚜렷하며, 선행 연구에서도 국가 차원의 제사가 시행된 맥락으로 논의된 바 있다.⁸ 한편, 이 두 유구는 모두 퇴적상으로 보아 반복적인 의례 행위가 시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1-9호·31호 유구 출토 기종별 수량 및 훼손 양상

유구	구분	고배	삼족기	뚜껑	개배	기대	호·옹	자비용기	완
9호	출토량	78	56	241	19	23	639	322	49
	훼손량	64	24	20	5	0	3	0	0
31호	출토량	5	7	18	0	1	77	36	0
	훼손량	2	3	2	0	1	2	0	0

이 두 수혈에서는 <표1>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다양한 종류의 토기가 출토되었다. 하지만 그중 제기를 중심으로 특정 부위를 의도적으로 분리하는 훼손 방식이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고배와 삼족기는 배신과 대각 또는 족부를 분리하였으며, 뚜껑은 꼭지를 제거한 사례가 여러 개체에서 나타난다. 이처럼 특정 기종의 일정한 부위를 선택적으로 분리하는 행위가 반복된다는 점에서, 이는 우연한 파손이라기보다 훼손의 결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완형 토기에서 분리된 파편은 거의 확인되지 않아, 훼손 과정에서 제거된 일부 파편이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별도로 처리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9호와 31호 유구에서는 토기 훼손뿐만 아니라 의례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다양한 행위의 흔적이 함께 관찰된다. 동물 뼈는 동물 희생용, 탄화된 복숭아 핵은 소각 행위를 시사하며, 장란형토기·심발형토기·시루와 같은 자비용기와 완과 같은 배식기는 음식의 조리과 배식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이러한 자비용기와 완에서는 제기와 달리 훼손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동일한 의례 공간에서 사용된 토기라 하더라도

8 김창석, 「한성기 백제의 국가제사 체계와 변화 양상: 풍납토성 경당지구 44호·9호 유구의 성격 검토를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22(2004), 9쪽; 정수옥, 앞의 논문(2020), 19쪽.

그 기능이나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처리 방식이 적용되었음을 보여 준다.

나아가 이 두 유구에서는 의례 참여자들에 의한 공음공식 행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초대형 시루가 출토되어 다량의 술과 떡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추정되며⁹ 말의 경우에도 고기가 많은 몸체 부위가 확인되지 않아 의례 과정에서 소비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 여러 역사적, 민족지적 기록들에서 고기는 제의나 연회 과정에서 나누어 먹고, 두개골 등 특정 부위와 내장 등을 봉헌하는 행위가 확인되며¹⁰ 한반도 중부지방의 경우에도 두개골이 주로 매납되는 양상이 나타나, 나머지 부분을 소비하고 경제적 가치가 낮은 머리 부분이 매납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¹¹ 더불어 음식이 봉헌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는데, 매납된 말 머리카락이나 조각된 복숭아 핵 등은 초월적 존재를 위한 음식 봉헌을 보여 주는 자료일 수 있다.

이처럼 9호·31호 유구, 특히 9호 유구에서는 봉헌은 물론이고 공음공식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제기 중심으로 췌기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봉헌된 제기를 깨트리면서 의례를 종료하거나 주의를 집중시키는 절차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 127호

127호¹²는 역시 상층에서 확인되는 길이 124cm, 너비 100cm의 소형 수혈이다. 내부에서 막대한 양의 토기 잔편이 가득 찬 채로 발견되었으나, 완형으로 복원되는 사례가 전혀 발견되지 않아 폐기 맥락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췌기는 호류 8점의 구연부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며, 복원도가 높은 호류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일부 토기의 인위적 파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9 정수옥, 위의 논문(2020), 18~19쪽.

10 M. Dietler, "Theorizing the Feast: Rituals of Consumption, Commensal Politics, and Power in African Contexts," M. Dietler & B. Hayden (eds.), *Feasts: Archaeological and Ethnographic Perspectives on Food, Politics, and Power*(Washington, D.C.: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2001), pp. 65~114.

11 고은별, 「중부지방 원삼국~삼국시대 동물희생의례의 지역적 특징」, 『고고학』 19-1(2020), 62쪽.

12 한신대학교 박물관, 앞의 책(2006).

127호 자체가 훼손 장소가 아닐 가능성이 크므로, 이러한 훼손이 어떠한 행위 과정에서 이루어졌는지 그 구체적인 맥락과 성격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이 유구의 경우 흑색 대용을 바닥에 깔고 토기편을 그 위에 올려놓았는데, 흑색 대용이 101호에서 출토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밝혀져 주목된다. 이는 과거에 폐기한 토기를 재활용한 것으로, 경당지구에서 의례를 주관한 사람들이 과거 의례의 흔적을 지속적으로 경험하였을 가능성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3) 206호 우물

206호¹³는 원형의 우물 유구로, 대형 건물에 의해 보호되고 주변이 도랑으로 둘러싸인 구조이다. 이처럼 일반적인 우물과 구별되는 구조를 보일 뿐만 아니라, 총 215점의 토기와 일본 고분시대의 하니와(埴輪)로 추정되는 토제품, 어망추 등이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수변 제사와 관련된 장소로 이해되고 있다.

우물 내부는 퇴적 양상에 따라 상층 적석부, 석재 충전층, 관재단 아래 뿔층의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훼손기는 주로 뿔층의 매납 토기에서 확인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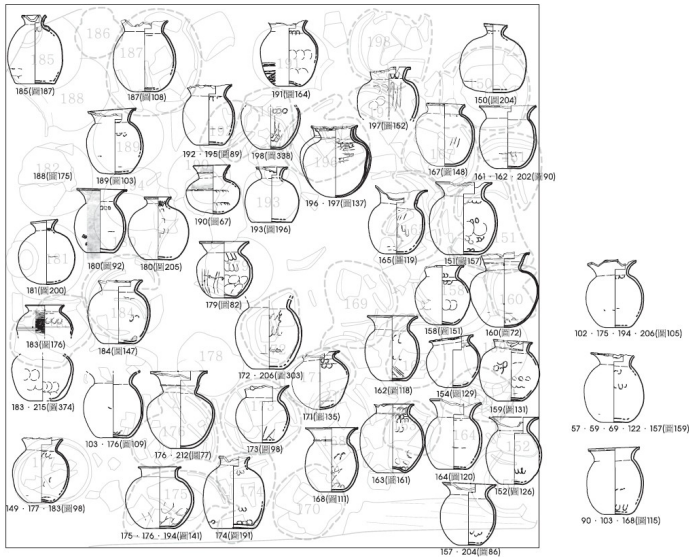


그림1-206호 우물 매납층 출토 토기류(한신대학교 박물관 2015: 25쪽, 도면 8)

13 한신대학교 박물관, 『풍납토성 XVII: 경당지구 206호 유구에 대한 보고』(2015).

데, 이 토기들은 우물 축조 시점에 한꺼번에 매납된 것으로 추정된다. 완형의 토기들은 예외 없이 구연부를 인위적으로 깨트린 형태로(<그림1>) 훼손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1개 사례를 제외하면 상부에서 확인된 토기와 접합되는 것이 없어, 분리된 파편은 별도의 장소에 처리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훼손이 확인되는 토기는 총 9종류로 특히 저장용 토기인 광구호와 단경호의 수량이 많아(<표2>), 제기가 집중적으로 선택된 9호·31호와 차이를 보인다. 한편 광구호나 단경호는 대체로 구연이 외반하는 형태로, 훼손의 시정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표2-206호 토기 매납층 훼손 토기 수량

광구호	단경호	병	직구호·사이부호·유공호·대호	장군	심발
61	56	27	각 1점	2	1

206호에서 행해진 의례 행위에 대해서는, 파상문 장경호, 유공광구장군, 유공호, 선각문호 등 다종의 토기류가 백제 지방에서 제작된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지방 세력과 백제 왕이 함께 참여해 우물에 물을 붓고 용기를 매납하는 제사가 시행되었을 가능성이 논의된 바 있다.¹⁴ 이 과정에서는 음식 봉헌 행위도 일부 포함되었을 수 있는데, 탄화미 소량과 탄화되지 않은 복숭아 및 앵두의 핵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식물들은 우연히 유입되었을 수도 있지만, 탄화미와 복숭아가 무덤 등 여러 의례적 맥락에서 확인되는 핵심적인 식물 종이라는 점,¹⁵ 그리고 복숭아의 경우 수번 제사의 맥락에서 빈번하게 확인된다는 점¹⁶을 고려할 때 의도적으로 매납되었을 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조리용 토기나 배식기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특정한 음식을 제작하여 공음공식을 하거나 봉헌하는 행위의 가능성은

14 권오영, 「성스러운 우물의 제사: 풍납토성 경당지구 206호 유구의 성격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11-2(2008), 239쪽.

15 이희경, 「고대 한반도 매장 의례의 식물 이용: 낙랑과 영남지방의 무덤을 중심으로」, 『한국상고사학보』 127(2025), 109~111쪽.

16 권오영, 앞의 논문(2008), 232쪽; 안승모, 「고고학으로 본 복숭아 재배와 의례적 기능」, 『馬韓·百濟文化』 26(2015), 29쪽.

두드러지지 않는다.

따라서 206호의 의례는 토기와 음료를 봉헌하는 행위를 중심으로 하면서, 소량의 음식 봉헌 및 소각 행위가 부가적으로 결합된 형태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러한 의례 과정에서 매납 토기의 구연부를 의도적으로 타결하는 행위가 함께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2. 몽촌토성 85-2호 토광

85-2호 토광¹⁷은 길이 약 3.3m, 너비 약 1.8m의 장방형 유구로, 내부에서 40점 이상의 토기가 출토되었다. 훼손 행위가 확인되고 일부 토기의 의도적 배치가 관찰되어, 의례 가능성이 추정된다. 구체적으로 중앙에서는 대형 삼족기 2점이 포개어 뒤집어 놓은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그 옆에는 대부소호 2점이 나란히 놓혀진 채 발견되었다.

훼손으로 보고된 사례는 뚜껑 1점으로, 구연부 일부가 인위적으로 타결된 상태로 출토되었다. 다만 다른 토기에서도 의도적 파손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는데, 초기 조사보고서에서는 삼족기와 유개소호 등을 배치한 뒤 생토를 덮는 과정에서 삼족기와 파배 등의 토기를 유구 외부에서 깨뜨리고, 그 파편을 주로 광 내부의 서북쪽과 동남쪽에 던져 넣은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¹⁸

이 유구의 경우 훼손 사례가 1점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훼손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조사자에 의해 개별 토기에서 인위적 타결 흔적이 확인되었고, 조사 당시에도 추가적인 토기 파손과 파편 투입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토기의 의도적 배치까지 함께 확인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85-2호에서는 매납·폐쇄 과정에서 훼손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음식물 유존체나 조리·배식과 관련된 자료가 뚜렷하지 않아, 이러한 훼손이 음식 봉헌이나 공음공식과 연동되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17 서울대학교 박물관, 『몽촌토성 새롭게 다시 보고하다』(2023).

18 몽촌토성발굴조사단, 『몽촌토성 발굴조사보고』(1985), 66~67쪽.

IV. 취락 유구의 훼손 사례

도성 중심부가 아닌 경기지역 유적들 가운데는 의왕 내손동과 서울 방이동 유적, 그리고 플라스크형 수혈이 조성된 일부 취락에서 훼손 사례가 확인된다. 이들 유적은 모두 일반적인 취락과는 구분되는 입지나 유구·유물 양상을 보여, 백제 국가의 정치·경제적 운영과 일정한 관련성을 지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먼저 내손동 유적은 대규모 육각형 주거지와 초석식 건물지 등이 확인되어 거점 취락으로 추정되며, 지리적 위치와 자비용기가 다수 출토된다는 점에서 모락산성에 조리된 음식물을 공급하던 특수한 기능의 취락이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¹⁹ 방이동 유적 역시 풍납토성 인근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백제 한성기 도성의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플라스크형 수혈이 조성된 취락 또한 경제적으로 중요한 취락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플라스크형 수혈은 정형화된 규모와 형태, 대형 단경호의 출토, 관방 시설과의 공간적 연계성 등을 근거로 국가적 저장 시설 혹은 조세·공납 체제와 관련된 시설로 해석되기 때문이다.²⁰

1. 의왕 내손동

내손동 유적²¹에서는 우물과 2기의 수혈 유구에서 토기 훼손이 확인되었다. 먼저 우물부터 살펴보면, 취락 북쪽 도로 구간과 남쪽 생활 공간 사이에서 발견된 석조 우물로 바닥과 주변에서 토기의 훼손 행위가 확인된다.

우물 바닥에서는 심발형토기 2점, 장란형토기 1점, 광구장경호 1점, 단경호 2점, 병 1점이 확인되었는데, 이 중 광구장경호 구연부에서 인위적인 타결 흔적

19 겨레문화유산연구원 외, 『의왕 내손동 백제 유적』(고양: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24), 51쪽.

20 김왕국, 「백제 한성기 저장시설 확산의 동인: 단면 플라스크형 저장수혈을 중심으로」, 『百濟研究』 63(2016); 이성주, 「저장용 대형 단경호의 생산과 한성백제기의 정치경제」, 『한국상고사학보』 86(2014); 이희경, 「백제 한성기 플라스크형 수혈의 확산과 저장 방식의 변화」, 『백제학보』 44(2023).

21 겨레문화유산연구원 외, 앞의 책(2024).

이 관찰되었다. 훼손 사례는 1점에 불과하지만, 본고에서 검토한 풍납토성 경당 지구 206호 우물과 방이동 목조우물에서도 광구호류의 구연부 훼손이 집중적으로 확인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손동 사례 역시 훼손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우물에서는 이와 같이 특정 부위를 때어 내는 훼손뿐만 아니라, 토기를 깨뜨려 파쇄했을 가능성도 추정된다. 우물 바닥에서는 다수의 심발형토기 저부편이 함께 출토되어 우물 축조 시점에 토기를 파쇄·집적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우물 주변에서도 심발형토기를 중심으로 한 토기편이 일정 범위에 집중되어 확인되었다.

파쇄 행위의 경우 의도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우물 바닥의 광구장경호에서 의도적 타결 흔적이 확인된다는 점, 일반적인 폐기 양상과 달리 다양한 기종의 토기편이 뒤섞이기보다 심발형토기편이 주로 집중된다는 점, 그리고 사람들의 접근이 빈번했을 우물 주변에 날카롭고 큰 토기편이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단순한 폐기의 결과로만 보기는 어렵다. 물론 우물 주변의 토기편은 사용 종료 뒤 파쇄·폐기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특정 공간을 중심으로 심발형토기편이 집중적으로 집적되었다는 점에서, 그 처리 과정에 일정한 의도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파쇄된 토기 중 일부에서는 내외면에 뚜렷한 그늘임 흔적이 관찰되어, 실제 조리에 사용된 토기가 파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훼손 행위가 조리 행위와 연동되었을 가능성을 드러내는데, 우물의 위치를 고려하면 공음공식의 가능성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우물 바로 아래쪽에는 주거군 사이에 공동체가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넓은 공터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다만 공음공식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이 종료된 자비용기를 우물 주변에서 파쇄하여 처리한 결과일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다음으로 A-48호 수혈(장축 250cm, 장타원형)과 A-50호(장축 106cm, 방형)에서도 인위적 훼손이 관찰되는데, 두 유구 모두 우물과 근접한 장소에 위치한다.

먼저 A-48호에서는 고배, 완, 발, 장란형토기 등 10점이 출토되었는데, 이 중 고배의 대각단이 분리된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A-50호는 장경호와 단경호의 구연부에서 타결 흔적이 관찰되었다(〈그림2〉). 개별 유구에서 확인되는 사례 수는 많지 않지만, 우물과 인접한 여러 유구에서 특정 부위의 파손이 나타나고, 특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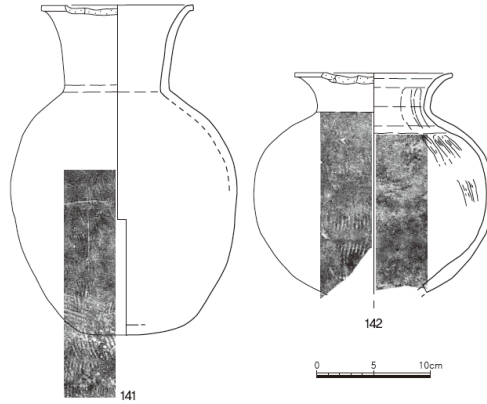


그림2-A-50호 수혈 훼손 토기(겨레문화유산연구원 외 2024: 134쪽, 도면 115)

A-50호에서는 두 호류의 구연부가 공통적으로 타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도적 훼손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두 수혈에서 훼손된 토기의 기종과 파손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음식이나 음료를 담을 수 있는 용기가 포함된다는 점에서는 봉헌과 연관된 처리 행위였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유기물이 보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러한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토기 자체에 대한 훼손만 진행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내손동 수혈 유구에서는 훼손 이외의 의례 절차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으며, 훼손된 토기가 매납된 상태로 발견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행위가 수혈의 사용 종료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종합하면, 내손동 유적에서는 우물과 그 주변 수혈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양상의 토기 훼손이 확인된다. 우물에서는 조리에 사용된 자비용기의 파쇄와 광구장경호의 구연부 타결이 함께 나타나며, 이러한 훼손이 조리 또는 공음공식과 연동된 처리 행위였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반면, 인접한 수혈에서는 토기의 특정 부위를 선택적으로 훼손하는 양상만이 확인된다. 따라서 동일 유적 내 인접한 공간에서도, 유구의 성격에 따라 훼손 대상과 방식, 그리고 이에 연동된 행위에 일정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서울 방이동

방이동 유적²²에서 토기의 훼손은 목조우물에서 관찰된다. 이 우물에서는 다수의 완형 토기와 함께 유리제 구슬, 청동지환, 그리고 의례적 맥락에서 빈번하게 확인되는 복숭아 핵 등이 출토되었다. 즉, 일상적인 폐기물로 보기 어려운 물품들이 완형 토기와 함께 우물 내부에 집중적으로 매납되었다는 점에서, 토기 매납 과정에 일정한 의례적 행위가 수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우물 내부는 조성 순서에 따라 초축부, 개축부, 개축부 최상단으로 구분되는데, 이 가운데 토기의 훼손은 초축부 1·2단에서 서로 포개진 상태로 출토된 완형 토기 일부에서 확인된다. 매납된 토기 가운데 특정 기종에서 훼손이 집중되고, 구연부의 파손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의도적인 훼손 행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우물에서는 호류를 중심으로 제기와 자비용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토기가 출토되었다. 하지만 훼손은 6개 기종에서만 확인되며, 특히 구연부가 넓게 벌어지는 호류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광구장경호는 전체 18점 가운데 16점, 광구호는 4점 전부, 광구직구호는 1점 전부에서 훼손이 확인되어 해당 기종에서 훼손의 선택성이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표3〉).

표3-방이동 목조우물 출토 토기의 기종별 수량 및 훼손 양상

구분	고배	광구 장경호	광구 호	광구 직구호	외반구 연소호	병	삼족기	심발형	시루	단경호	대옹
출토량	3	18	4	1	4	2	1	2	1	5	1
훼손량	1	16	4	1	2	1	0	0	0	0	0

이와 같은 양상은 풍납토성 206호와 유사한 것으로, 방이동 목조우물에서도 초축 단계에 토기를 우물에 매납하는 과정에서 특정 기종을 선택하여 훼손하는 절차가 포함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복숭아와 살구 등 과실류가 함께 확인된다는 점에서, 과실류를 매납하는 행위가 유사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

22 중부고고학연구소, 『서울 방이동 유적』(2026).

다. 다만 풍납토성 206호와 다르게 탄화 종자는 확인되지 않아 소각을 포함한 의례 절차는 상정하기 어렵다.

3. 플라스크형 수혈 조성 취락

플라스크형 수혈이 조성된 취락 가운데 용인 마북동,²³ 서천동,²⁴ 청덕리,²⁵ 화성 석우리 먹실,²⁶ 오산 탑동·두곡동²⁷ 등 여러 유적에서 토기의 훼손이 확인된다. 훼손은 주거지와 수혈 모두에서 나타나지만, 수혈의 경우 내부토에서 다른 토기편과 함께 출토되어 별도의 장소에서 훼손된 토기가 이차적으로 유입된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도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그러한 사례를 제외하고, 해당 유구에서의 의도적 훼손이 시행되었을 가능성이 큰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주거지의 훼손은 청덕리와 두곡동을 제외한 유적에서 확인되며, 석우리 먹실 4기, 마북동 15기, 서천동 2기의 주거지에서 나타난다. 유적에 관계없이 대체로 고배 1~3점을 대상으로 훼손이 이루어졌으며, 마북동의 일부 주거지에서는 단경호·직구단경호·병·발·대웅 등에서도 훼손이 확인된다. 훼손이 나타나는 주거지는 규모나 유물상에서 뚜렷한 공통점이 없고 화재 흔적도 대부분 확인되지 않아, 주거지의 사용 종료와 관련하여 고배와 같은 특정 기종을 훼손하는 절차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수혈의 훼손은 서천동을 제외한 모든 유적에서 확인되는데,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먼저 석우리 먹실에서는 플라스크형 수혈 24호와 60호에서 각각 14점과 11점의 토기에 훼손 흔적이 확인되며, 주로 구연부를 중심으로 나타난다(<그림3>). 이 유구들에서는 고배·호류·뚜껑 등이 도치되거나 서로 포개진 상태로 출토된다는 점에서, 수혈에 보관 또는 매납된 토기를 대상으로 훼손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23 기전문화재연구원, 『용인 마북동 취락유적』(2009).

24 기전문화재연구원, 『용인 서천동유적』(2011).

25 기전문화재연구원, 『용인 청덕리 백제 수혈유구』(2006).

26 기전문화재연구원, 『화성 석우리 먹실유적』(2007).

27 기호문화재연구원, 『오산 탑동·두곡동 유적』(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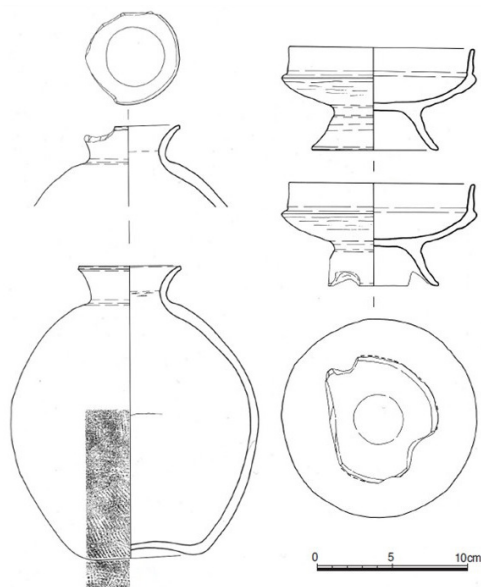


그림3-석우리 먹실 60호 수혈 훼손 토기(기전문화재연구원 2007: 227쪽, 도면 141)

마북동에서는 79호와 255호 수혈에서 의도적 훼손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두 수혈에서는 여러 점의 완형 토기가 출토되었으나, 모두 제기인 고배 2점의 구연부와 대각부에서 훼손 흔적이 확인되었다. 두 수혈은 깊이 1m 미만이고 입구가 바닥보다 넓은 일반적인 형태로, 플라스크형 수혈 자체에서 다수의 훼손이 확인되는 석우리 먹실과는 차이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청덕리와 두곡동은 각각 깊이가 깊은 플라스크형, 원통형 수혈 각 1기에서만 훼손이 확인되었다. 청덕리의 플라스크형 수혈에서는 고배 13점, 대웅 4점, 소호·단경호 등이 출토되었으며, 단경호 1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토기에서 훼손이 확인된다. 두곡동의 원통형 수혈에서는 바닥에 대웅 3점이 파쇄되어 깔린 상태로 확인되었으며, 그중 1점의 구연부에서는 인위적인 타결 흔적이 관찰되었다. 두곡동 사례는 토기가 전면적으로 파쇄되어 훼손 양상을 판단하기 어렵지만, 수혈 바닥에 여러 개체가 집중적으로 파쇄되어 배치되고 일부 구연부에서 명확한 타결 흔적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훼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4-플라스크형 수혈 조성 취락의 훼손 토기 기종별 수량

구분	유적	고배	병	완·배	뚜껑	직구 단경호	단경호	광구호	대응, 대호	발
주거지	석우리	5		1						
	마북동	13	1		1	1	3		3	1
	서천동	2								
수혈	석우리	4	1	1	2	3	7	5	12	
	마북동	9	1						1	
	서천동	6								

비교적 다수의 유구에서 훼손이 관찰된 석우리, 마북동, 서천동을 대상으로 훼손 토기의 수량을 비교한 결과는 <표4>와 같다. 주거지에서는 유적에 관계없이 고배의 훼손이 가장 빈번하며, 수혈에서도 마북동과 서천동은 고배의 비중이 가장 높다. 이와 같은 양상은 앞서 언급한 청덕리 유적도 마찬가지라서, 유구의 종류에 상관없이 제기인 고배를 중심으로 훼손이 행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석우리 수혈의 경우 차별적인 양상을 보여, 대호와 단경호의 훼손이 고배보다 많이 이루어졌다.

종합하면, 플라스크형 수혈이 조성된 취락에서는 주거지와 수혈 모두에서 토기의 훼손이 확인되며, 특히 고배를 중심으로 특정 기종을 선택적으로 훼손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또한 석우리·청덕리·두곡동과 같이 출토 맥락이 비교적 분명한 수혈에서는 토기를 일정한 상태로 배치하거나 매납한 뒤 훼손하는 별도의 처리 절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동식물유존체나 탄화물, 부식흔 등은 관찰되지 않아 음식 봉헌이나 공음공식 등의 복합적 절차와 연관성을 보이지 않으며, 주로 수혈의 사용 종료 단계에서 저장·보관되었던 토기 자체의 훼손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V. 분묘 관련 유구의 획기 사례

분묘 관련 유구의 획기 사례는 서울 석촌동 고분군과 하남 감일동 유적에서 확인된다. 두 유적 모두 백제 중앙의 지배집단과 관련된 묘역으로 이해되며, 석촌동 고분군은 왕실을 비롯한 최상위 지배층과 관련된 중심 고분군으로, 감일동 유적은 도성 인근의 중앙 지배집단과 관련된 묘역으로 평가되고 있다.²⁸

1. 서울 석촌동

석촌동 고분군에서는 토광묘·목관묘·목곽묘·적석묘 등 다양한 묘제에서 획기된 토기가 출토되었다. 획기 토기의 출토 맥락과 양상도 다양하여, 본고에서는 이를 크게 성토층, 매장례부, 그리고 매장주체부의 세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²⁹

첫 번째는 성토층에서 획기 토기가 출토되는 경우이다. 한성백제박물관이 조사한 연접적석총³⁰ 가운데 1호·3호·8호·9호·11호·17호 적석묘와 연접적석총 북쪽에서 확인된 1호 구획적석목곽묘³¹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 유구의 획기 토기는 모두 성토층 출토품이라 성토 공정의 주요 단계에서 행해진 의례의 결과물로 추정된다. 한편, 획기가 확인되는 적석묘들은 특별히 크거나 유물 양상에서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모두 성토식 적석묘라는 공통점이 있다.

각 유구에서는 1~6점의 획기 토기가 보고되었는데, 성토층에 매납된 토기에

28 박신영·정성용, 「河南 甘一洞 古墳群의 石室構造와 被葬者集團의 性格」, 『고고학』 19-1 (2020).

29 이하 석촌동 고분군 자료는 한성백제박물관, 『서울 석촌동 고분군』 I (2019) · II (2020) · III (2021) · IV (2022) · V (2023) · VI (2024)을 종합하여 검토하였다.

30 이 글에서 적석묘는 연접적석총을 구성하는 개별 단위의 무덤을 말한다. 그중 성토식 적석묘는 석축 기반 내부를 흙으로 성토한 유형이고, 순수 적석묘는 기반과 내부를 모두 석재로 축조한 유형이다. 연접식 적석총은 이러한 개별 적석묘와 그 사이의 연접부가 결합하여, 기존 무덤에 다른 무덤을 이어 축조하며 확장된 구조를 뜻한다. 정치영, 「석촌동 1호분 북쪽 연접적석총의 구조와 성격」, 『고고학』 20-2(2021), 68~71쪽.

31 세장방형의 석축유구로 내부에 소형 석재를 세로로 쌓아 칸막이를 설치하여 의도적으로 내부 공간을 구획한 무덤이다. 칸막이에 의해 5개의 매장 단위가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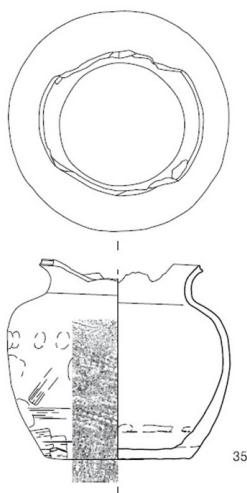


그림4-8호 적석묘 평저호 궤기(한성백제박물관 2024: 150쪽, 도면 43)

서 구연부 타결(〈그림4〉) 또는 배신과 대각을 분리하는 인위적 파손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성토 과정 중 의도적인 궤기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궤기와 관련된 절차는 다양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토기는 대체로 정치된 상태로 놓여 있었으나, 1호 적석묘의 통형고배는 뒤집어진 상태로 출토되어 외래계 토기가 특별한 방식으로 이용되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공음공식의 가능성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정치된 토기들로 보아 음식 봉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또한 1호 구획적석목곽묘의 경우 성토층에서 소토와 다량의 초본 흔적이 확인되어 소각 행위가 수반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토광묘·목관묘·목곽묘에서 관 내부 또는 관과 관 사이에 매납된 궤기 토기이다. 한성백제박물관이 조사한 3·9호 토광묘, 1호·8호·14호·15호 목관묘, 5호·6호·12호 목곽묘, 그리고 서울대학교 박물관이 조사한 5호와 9호 토광묘에서³² 궤기 토기가 발견되었다. 여러 무덤의 토기에서 구연을 중심으로 한 파손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궤기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궤기 토기의 수량은 적은 편이지만 전반적으로 부장되는 토기의 수량도 1~2점에 불과하므로, 궤기 비율이 낮은 편은 아니다.

32 서울대학교 박물관, 『석촌동고분군 III』(2015).

표5-석촌동 훼손 토기 수량

출토 맥락	통형고배	고배	삼족기	완	직구호	평저호	단경호	광구호	장경호	자기	심발
성토층	1	3	1	1	3	2	7				
관곽 내		1			2		2	3	1	1	1

성토층에 매납되는 토기나 부장되는 토기 모두 종류는 다양한 편이다. 하지만 맥락에 상관없이 호류의 수량이 많은 편이라(표5), 성토층에서는 전체 훼손 토기 가운데 호류가 66.7%를 차지하며, 토광·목관·목곽묘에서는 72.7%를 차지한다. 호류 가운데에는 직구호 역시 훼손이 시행되었으나, 전반적으로는 외반된 구연부를 갖는 단경호·평저호·장경호 등의 기종이 중심을 이룬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연결된 적석묘들 사이에 위치한 1호와 7호 매장유구에서 확인되는 훼손이다. 매장유구에서는 다량의 토기와 기와편, 동물 뼈, 화장 인골편 등이 출토되지만 유구 내부에서 직접 불을 피운 흔적은 확인되지 않아,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진 장송·화장 의례의 결과물이 최종적으로 매납·폐기된 맥락으로 이해되고 있다.

훼손으로 판단되는 사례는 두 유구에서 각각 1점씩 확인된다. 1호 매장유구에서는 고배 1점의 배신과 대각이 분리된 상태로 출토되었으며, 7호 매장유구에서는 직구단경호의 구연부 일부가 타결된 상태로 확인된다. 이처럼 용기의 특정 부위를 선택적으로 분리하거나 타결한 양상은 일반적인 파손과 구별되는 훼손의 가능성을 보여 준다.

한편, 1호 매장유구에서는 장란형토기 9점과 심발형토기 10점, 배식기인 완 3점과 고배 8점, 그리고 말과 소의 턱뼈가 함께 출토되어 의례 과정에서 음식의 조리·배식이나 공음공식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반면, 7호 매장유구에서는 자비용기가 1점만 출토되고 동물유존체도 확인되지 않아 동일한 절차를 추정하기 어렵다. 다만 해당 유구는 전반적으로 유물 출토량이 적어 보존 상태나 폐기 과정의 차이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양상을 고려하면 매장유구, 특히 1호와 연관된 의례 과정에서는 공음공식을 포함한 여러 절차와 훼손이 함께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매장유구는 폐기 맥락이기 때문에 훼손이 시행된 시점을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2. 하남 감일동

감일동 유적³³은 다수의 횡혈식 석실묘가 확인된 유적으로, 부장품의 수량은 전반적으로 적은 편이다. 그럼에도 토기는 주요 부장품으로 이용되어 직구단경호·단경호·광구장경호·완·심발형토기·고배·병·뚜껑·합 등 다양한 기종이 출토되었다.

다만 토기의 의도적 훼손은 매우 드물어, 현재까지 훼손 가능성이 제기된 사례는 중국제 자기 2점에 한정된다. 1-3지구 11호묘의 청자호수호 1점과 2-5지구 1호묘의 청자계수호 1점이 이에 해당하며, 두 점 모두 구연부와 손잡이가 파손된 상태로 출토되었다. 사례 수가 적어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위신재적 성격을 지닌 중국제 자기에서만 특정 부위의 파손이 나타난다는 점과 분리된 파편이 발견되었다는 언급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부위를 의도적으로 훼손한 뒤 파편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만을 매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감일동의 훼손은 광범위하게 확인되지 않으며, 특정한 위신재에 한정하여 나타나 상당히 제한적인 관습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VI. 백제 한성기 훼손 의례의 특징과 의미

1. 훼손 맥락 및 연관 절차

백제의 토기 훼손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 과정에서는 고대 경기지역에서 확인된 다수의 유적을 검토하였으나, 토기 훼손의 명확한 사례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남양주 장현리와 같은 일반 취락은 물론이고 용인 고림동이나 포천 자작리와 같은 거점 취락, 내삼미동처럼 플라스크형 수혈이 확인된 유적에서도 훼손 양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훼손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사례도 있으나, 일정한 방식으로 파손된 토기가 복수로 확인될 경우 의도적

33 고려문화재연구원, 『하남 감일동 유적』(2022).

훼기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양상은 백제 한성기 훼기 의례가 상당히 제한된 조건에서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현재 확인되는 경기지역 자료를 기준으로 볼 때, 백제 국가의 주요 의례 맥락에서 토기 훼기가 뚜렷해지는 시점은 한성 2기인 4세기 중엽 이후로 판단된다. 한성 1기에 해당하는 풍납토성 하층 101호 유구에서도 훼기 가능성이 언급된 바 있으나 그 흔적이 명확하지 않은 반면, 경당지구 상층의 여러 유구에서는 의도적 훼기가 비교적 뚜렷하게 확인되기 때문이다. 또한 석촌동 고분군의 경우에도 훼기 관습은 대체로 4세기 중엽 이후부터 나타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비교적 이른 훼기 증거가 확인되는 1호 적석묘의 기초성토층에서 4세기 중엽으로 편년되는 아라가야계 통형고배가 매납되었기 때문이다.³⁴

다만 훼기 관습은 연천 학곡리 적석총³⁵이나 오산 수청동³⁶과 같은 원삼국시대 유적부터 관찰되므로, 한성기에 새롭게 등장한 관습은 아니다. 재지의 관습이 국가 의례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하다면 이는 백제의 의도된 전략의 일환으로 행해졌을 수 있다. 새로운 정치집단은 과거의 의례 형식을 새로운 목적에 맞게 전환함으로써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³⁷

한성기에 이르러 훼기는 백제 국가에서 정치·경제적으로 중요한 맥락에서 주로 행해진 것으로 파악된다. 풍납토성 9호·31호 수혈과 206호 우물은 국가 제사와 연관된 유구로 이해되며, 석촌동과 감일동의 사례는 백제 엘리트 집단의 매장 의례에서 훼기가 시행되었음을 보여 준다. 또한 내손동과 방이동, 플라스크형 수혈 조성 유적에서 확인되는 훼기는 국가의 정치·경제적 운영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거점 취락 및 저장 취락에서 훼기 의례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특히 도성 중심부에서는 복수의 유구에서 정형적인 토기 파손 양상이 확인되며, 본고에서 검토한 사례 외에도 여러 유구에서 훼기 가능성이 언급되어, 다른 맥락

34 정치영, 앞의 논문(2021).

35 기전문화재연구원, 『漣川 鶴谷里 積石塚：漣川 鶴谷堤 改修工事地域 内 發掘調査 報告書』(2004).

36 경기문화재연구원, 『오산 수청동 백제 분묘군 IV』(2012).

37 L. J. Lucero, "The Politics of Ritual: The Emergence of Classic Maya Rulers," *Current Anthropology*, Vol. 44, No. 4(2003), p. 523.

에 비해 훼손 행위가 비교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훼손과 연동된 절차는 유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우선 도성 중심부 및 왕실 관련 무덤 등 국가적 제사나 최상위 지배층과 관련된 맥락에서는 훼손이 대체로 복합적인 의례 절차와 연동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풍납토성의 9호가 대표적인 사례로, 상징성이 높은 유물들이 확인되고, 말의 두개골과 어골, 탄화된 복숭아 핵이 동반되어 희생과 소각을 수반한 봉헌 절차가 상정된다. 더불어 다수의 자비용기와 배식기가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출토되어 공음공식의 가능성도 추정된다. 그리고 이는 유사한 성격의 31호 역시 마찬가지였을 가능성이 높다.

석촌동 1호 매장의례부에서도 역시 유사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말과 소의 턱뼈를 통해서는 동물 희생 및 봉헌을 추정할 수 있으며, 30점에 이르는 자비용기와 배식기들은 조리와 공음공식의 가능성을 추정케 한다. 또한 불에 탄 기와나 토기류는 소각 행위를 드러내어, 복잡한 의례 행위와 연동된 훼손 행위를 살펴볼 수 있다.

이처럼 국가 중심부에서의 훼손은 공음공식, 봉헌, 동물 희생, 소각 등 복잡한 절차와 연동되어 그 종결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유구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어, 206호 우물의 경우에는 소각이나 봉헌 가능성만 확인된다. 이는 각 유구에서 행해진 의례의 절차가 달랐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훼손이 다양한 절차의 의례와 연동되었음을 드러낸다.

최상위 지배층과 관련된 맥락이 아닌 경우에는 거점 취락이나 중앙 관료의 무덤이라도 대체로 복합적 절차의 증거가 뚜렷하지 않다. 내손동 우물 유구의 경우 조리와 공음공식, 파쇄 행위가 복합적으로 시행되었을 수 있지만, 이는 유구 전반의 양상을 통해 추정된 것으로 그 가능성을 분명히 확인하기는 어렵다. 또한 플라스크형 수혈이 조성된 취락의 경우에도 저장되어 있던 토기 자체를 훼손한 양상이 주로 나타나며, 감일동 유적 또한 일부 무덤의 중국제 자기에서만 훼손 가능성이 나타나 훼손이 제한적이고 복합적 의례와 연동되어 있는지도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방이동의 경우 훼손 토기뿐만 아니라 유리구슬과 청동지환, 복숭아·살구 등의 과실류가 함께 확인되어 다양한 물질을 매납하는 일정한 의례적 절차가 시행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풍납토성 206호와 비교적 유사한 양상으로, 풍납토성 인근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연관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처럼 백제의 훼손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맥락에서 나타나는 제한적인 관습으로, 특히 최상위 지배층과 관련된 맥락에서 복잡한 절차와 연동되어 행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2. 훼손 토기의 선택

훼손 토기는 상당히 다양하나 용도에 따라 크게 세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배식기이면서도 제기인 토기들로, 고배·삼족기·뚜껑 등이 포함되며, 두 번째는 저장용기로 각종 호류가 포함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비용기로 심발형 토기를 중심으로 제한적 훼손이 나타나며, 장란형토기나 시루에서는 훼손이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 한편, 중국제 자기나 가야 토기 등 외부에서 유입된 용기에 서 훼손 관습이 적용된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사례는 1~2개 정도로 매우 드물다.

훼손 토기의 선택은 유적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달랐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5〉는 훼손 토기의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유적을 대상으로 하여 기종 범주별 훼손 수량을 비교한 것으로,³⁸ 유적별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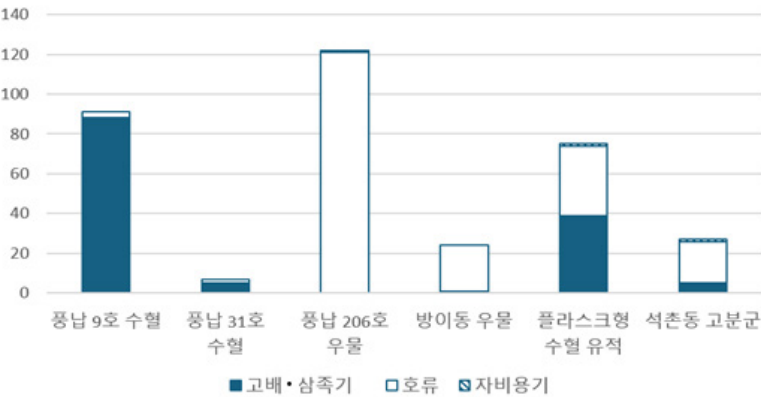


그림5-유적·출토 맥락별 훼손 토기의 범주별 수량

38 〈그림 5〉에서는 비교를 위해 제기류·호류·자비용기만 집계하였으며, 병·장군 및 범주가 불분명한 기종은 제외하였다. 또한 제기류는 고배와 삼족기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뚜껑은 두 기종에 부속되는 경우가 많아 함께 집계할 경우 제기류의 수량이 과대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제기류는 수혈과 연관성을 보인다. 풍납토성 9호와 31호 유구에서 제기류의 비율이 압도적이고, 플라스크형 수혈이 조성된 유적에서도 제기류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후자에서는 호류의 비율도 높지만, 이는 석우리에서 다수의 호류 훼손이 출토되었기 때문이며, 여러 유적 전반적으로는 제기류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제기류의 훼손이 확인되는 수혈들은 기능이 동일하지 않아, 기능적 유사성에 따라 훼손 토기가 선택되었다고 볼 수 없다. 풍납토성 9호와 31호는 의례 유구로 이해되는 반면, 플라스크형 수혈은 주로 저장시설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대신 각 유적의 성격과 계층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는 고급 기종인 고배·삼족기의 특징을 함께 고려하면, 이는 국가적으로 중요하게 관리된 공간에서 토기를 의례적으로 매납·처리하는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풍납토성 9호와 31호처럼 국가적 제사와 관련된 맥락에서 제기류가 주로 이용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플라스크형 수혈 역시 국가의 물자 관리 및 공동체의 생존 기반과 관련된 중요한 시설이라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저장물은 부패·도난·훼손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시설의 안정적 이용과 보호를 기원하거나 사용 종료를 처리하는 의례가 요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서천동과 같은 낮은 위계의 유적에서도 제기류가 의례용 토기로 선택되고, 그 훼손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호류의 훼손은 주로 우물과 무덤에서 확인된다. 풍납토성과 방이동 유적의 우물에서는 호류의 훼손이 집중적으로 확인되며, 석촌동 고분군의 여러 맥락에서도 호류가 주된 훼손 기종으로 나타난다. 우물은 물을 확보하고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액체를 담거나 저장하는 데 적합한 호류가 의례적 매납의 대상으로 선택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무덤에서는 음식이나 음료를 담아 땅자에게 제공하는 부장용기로서 호류가 선택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고고학적 증거는 남아 있지 않지만 실제로 음식이나 음료가 담겨 있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풍납토성 206호에서는 토기에 물을 담

아 부었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으며,³⁹ 오산 수청동 무덤군에서는 토기 내부에서 탄화 껍이 출토된 바 있다.⁴⁰

한편, 플라스크형 수혈 조성 취락의 경우 대체로 제기의 비율이 높지만, 석우리 유적의 수혈에서는 호류의 훼손 비율이 높은 편인데 이 역시 물건을 저장하는 유구의 기능적 특징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자비용기는 훼손 기종으로 거의 선택되지 않는다. 자비용기의 의도적 파쇄가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유적은 내손동 우물 유구가 유일하다. 이 경우 특정 부위를 분리하기보다는 토기 전체를 파손하는 양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훼손이 행해지더라도 그 방식이 차별적이었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

이처럼 훼손 토기의 기종은 맥락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서, 국가적 측면에서 의례가 중시되는 경우에는 제기류가 훼손의 대상이 되고, 물질을 담아 매납하는 의례가 행해지는 경우 호류가 주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는 각 맥락과 의례의 성격에 따라 훼손 기종의 선택이 달랐음을 시사한다.

3. 훼손의 종교·정치·사회적 의미

본 절에서는 훼손이 나타나는 유적들의 유물 및 유구의 양상을 토대로, 백제 한성기의 훼손이 어떠한 종교적·정치적·사회적 의도를 가지고 시행되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훼손의 의미, 특히 종교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 선행연구 사례를 참조함으로써 그 의도를 추정하고자 한다.

우선 훼손은 종교적·상징적 의도로 행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물이나 건축물 등을 훼손하는 고대 마야의 의례 절차는 특정한 사물이나 장소의 역할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하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이해되며,⁴¹ 고대 이집트의 장송 의례 과정에서 행해지는 붉은 토기의 파손은 벽사의 의도를 내포한 것으로 논의된다.⁴² 한

39 권오영, 앞의 논문(2008), 239쪽.

40 기전문화재연구원, 『오산 수청동유적-우미아파트 건설에 따른 발굴조사 보고서』(2006).

41 K. Tsukamoto, "Reverential Abandonment: A Termination Ritual at the Ancient Maya Polity of El Palmar," *Antiquity*, Vol. 91, No. 360(2017), pp. 1630~1646.

편으로 물건의 파괴는 그것을 다른 차원으로 이동시키는 상징적 전환으로도 이해되기도 하여,⁴³ 부장품의 훼손은 죽은 자와 함께 사후 세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논의된다.⁴⁴ 즉,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서 훼손은 종결, 벽사, 전환 등 여러 종교적 의도를 가진 행위로 나타나며, 파괴로 인해 그 기능이 종료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반도에서도 유사한 의도로 행해졌을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훼손은 사회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핵심은 파편의 이동성으로, 완형 토기를 의도적으로 파괴해 얻은 파편을 분배·재배치함으로써 산 자들 간의 또는 산 자와 죽은 자 간의 연결을 구축할 수 있다.⁴⁵ 예를 들어 불가리아 신석기 무덤에서 조개팔찌 파편이 무덤 내에서 확인되지 않는 점은 그 조각들이 산 자의 영역에서 계속 유통되었거나 다른 장소에 퇴적되었음을 시사하며, 이는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의 유대를 재생산하는 장치로 해석된다.⁴⁶

훼손은 나아가 정치적 목적을 띠 수도 있다. 의례의 장은 사회적 차이와 집단 연대를 강화하는 장치로 작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대규모 재화의 파쇄와 폐기는 부와 권위를 가시화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⁴⁷ 특히 물품을 파괴하는 행위

-
- 42 J. Budka, "Egyptian Impact on Pot-Breaking Ceremonies at el-Kurru? A Re-examination," in J. R. Anderson & D. A. Welsby (eds.), *The Fourth Cataract and Beyond: Proceedings of the 12th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Nubian Studies*(Leuven; Paris; Walpole, MA: Peeters, 2014), p. 646.
 - 43 E. Moreno & M. Caria, "The Killed Vessels: Background, Modalities and Possible Meanings in the Prehispanic Cultures of Northwest Argentina," *Annals of Reviews and Research*, Vol. 11, No. 1(2024), p. 1.
 - 44 L. V. Grinsell, "The Breaking of Objects as a Funerary Rite," *Folklore*, Vol. 72, No. 3(1961), p. 476.
 - 45 J. Chapman, *Fragmentation in Archaeology: People, Places and Broken Objects in the Prehistory of South Eastern Europe* (London/New York: Routledge, 2000), pp. 5~6.
 - 46 J. Chapman, B. Gaydarska & V. Slavchev, "The Life Histories of Spondylus Shell Rings from the Varna I Neolithic Cemetery (Northeast Bulgaria): Transformation, Revelation, Fragmentation and Deposition," *Acta Musei Varnaensis*, Vol. 6(2008), p. 146.
 - 47 D. Nash & S. D. deFrance, "Plotting Abandonment: Excavating a Ritual Deposit at the Wari Site of Cerro Baúl," *Journal of Anthropological Archaeology*, Vol. 53(2019), pp. 113~116.

는 강한 시청각 자극을 동반하는 고비용 행위로서, 의례 주관자의 부와 권위를 효과적으로 과시하여 지배를 정당화하고, 참여한 집단의 기억을 극대화하는 매개로 기능할 수 있다.

이처럼 췌기는 다양한 종교적·정치적·사회적 목적을 내포할 수 있으며, 관련 유물의 양상으로 보아 한성기 유적들 또한 다양한 의도를 가진 췌기 의례들이 시행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먼저 도성 중심부에서 이루어진 췌기는 대체로 복합적인 의도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9호와 31호 수혈, 206호 우물은 모두 의례에 핵심적으로 사용되었을 수 있는 토기가 췌기된 뒤 매납되었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따라서 이는 신성화된 기물의 사용 종료를 선언하고 재사용을 차단하려는 의도를 시사할 수 있다. 아울러 이 유구들이 물과 관련된 시설이거나 중요한 의례 장소였다는 점에서, 췌기는 부정의 침입을 차단하려는 벽사 의도와도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세 유구 모두 완형 토기에서 떼어 낸 파편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은, 파편을 서로 나누어 가짐으로써 관계를 재형성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게 한다. 특히 206호 우물의 경우 충청·전라 지역의 토기로 보아 지방 세력과 왕이 함께 참여하여 물을 봉헌하는 우물 제사가 있었다면, 파편의 분여는 위계적·결속적 관계를 재생산하고 오랫동안 기억하게 하는 장치로 기능했을 수 있다.

더불어 9호와 31호, 특히 9호 유구에서는 금제품과 탄정의 매납, 경제적 가치가 큰 말의 희생까지 확인되므로, 이와 함께 수행된 제기류의 다량 췌기는 부의 과시 의도를 드러낼 수 있다.

이처럼 경당지구는 백제 한성기 도성 중심부의 의례적 장소로서, 근접한 여러 유구에서 종교적·정치적·사회적으로 복합적인 의도를 지닌 췌기가 시행된 공간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의례 과정에서는 다수의 사람이 참여했을 수 있으며 췌기는 시청각적인 효과가 큰 방식으로 의례 참여자 간 관계를 오랫동안 기억하게 하는 효과적인 장치로 활용되었을 수 있다.

다음으로 내손동과 방이동 우물의 토기 췌기 행위는 췌기 토기가 우물 바닥 또는 축조 초기의 하부에서 확인된다는 점에서, 우물의 축조 및 사용 개시와 관련된 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우물의 안정적인 기능과 물의 확보를 기원하기 위한 봉헌 행위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물의 오염과 관련된 부정의 차단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우물이 취락의 공동 취수원이었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의례는 취락 공동체의 안녕과 결속을 기원하는 행위였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훼손기는 참여자들의 공동 기억을 강화하는 장치로 작동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는 206호의 훼손기 의례와 유사한 면이 있다. 다만 훼손기 토기의 종류가 다르고 수량 또한 큰 차이가 있다. 내손동의 심발형토기 수량은 알 수 없지만 구연부가 훼손된 토기는 1점에 불과하고, 방이동 역시 25점 정도이나, 206호의 경우 훼손기 토기 수량이 151점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는 의례 과정의 비용 및 이를 통한 효과 또한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 줄 수 있다. 또한 내손동의 경우, 완형 토기에서 파편을 떼어 내는 방식은 광주장경호 1점에서만 확인되므로 206호와 같은 파편 분어를 통한 관계 맺기의 의도는 확인하기 어렵다.

무덤 유적에서도 훼손기는 다양한 목적으로 행해졌으며, 그 의미는 출토 맥락에 따라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먼저 석촌동 부장 토기의 훼손기는 대체로 의례의 종결과 전환, 그리고 관계 맺기의 의도를 내포할 수 있다. 토기 훼손기는 주의를 집중시키며 매장 의례의 종결을 선언하는 표지로 기능할 수 있으며, 음식 부장의 가능성을 감안하면 음식이 죽은 자의 식량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장치였을 수도 있다. 아울러 분리된 토기 파편이 무덤 내부에서 거의 확인되지 않는 점은, 파편이 현세에 남아 산 자와 망자를 연결하는 관계 맺기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도 보여 준다. 또한 무덤의 훼손기는 과시적 목적과도 연관될 수 있다. 석촌동의 비교적 대형인 목곽묘와 감일동 일부 석실묘에서는 중국제 자기의 훼손기 가능성이 나타나는데, 이는 다른 무덤들과 구별되는 피장자의 부와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전략이었을 수 있다.

한편, 석촌동 1호 매장의례부에서도 기와, 철기, 동물 뼈 등 대량의 물질이 확인되어 과시적 의례 가능성이 시사되지만, 훼손기가 명확히 확인되는 것은 고배 1점에 국한된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훼손기는 주로 종결의 표지로 기능했을 수 있으며, 과시는 다른 물질의 소비를 통해 표현되었을 수도 있다.

부장 토기와 다르게 성토층에서 확인되는 훼손기는 무덤을 축조하는 성토 공정의 주요 단계에서 확인되어, 축조 과정의 부정을 차단하고 안정을 기원하는 지진(地鎭) 의례의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진 의례는 건축물의 기반을 구축하기 전

지신에게 행하는 의식으로, 한성기 동안 풍납토성 서성문 기초부에서도 매납된 토기가 발견되어 관련된 의례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⁴⁸

마지막으로, 플라스크형 수혈과 내손동 수혈의 의례는 수혈 내 훼손된 토기만 확인되고 봉헌이나 공음공식의 직접적 지표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체로 수혈의 사용 종료 선언 및 벽사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유구는 저장과 관련된 맥락으로 이해되는데, 저장 시설은 공동체의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 인프라라는 점에서, 그 사용이 종료되는 단계에 오염이나 부정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일정한 의례적 처리가 요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유적에서는 수혈 뿐만 아니라 주거지에서도 훼손이 확인되는데, 이는 종료와 정화의 목적을 가진 의례가 유적 내 여러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수행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몽촌토성 85-2호 토광 역시 토기 자체의 훼손 외에 별도 절차의 증거가 뚜렷하지 않아, 사용 종료와 부정 차단을 목적으로 한 종결 의례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백제 한성기 토기 훼손의 의례의 종결과 전환이라는 기본 의미를 바탕으로, 유적의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가졌던 것으로 이해된다.

VII. 결론

본고에서는 백제 한성기 경기지역을 대상으로 토기 훼손의 양상과 그 의례적·정치적·사회적 의미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토기 훼손은 4세기 중엽 이후 본격화된 것으로 추정되며, 도성 중심부, 거점 취락, 저장 취락, 엘리트 고분 등 정치·경제적으로 중요한 맥락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된 의례 행위로 판단되었다.

훼손 대상 토기는 제기류·저장용기·자비용기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제기류와 저장용기가 주로 이용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각 맥락에서 수행된 의례 절차와 공간의 기능에 따라 선택 양상이 달라, 제기류는 국가 차원의 제사나 국가적 저장과 연관된 취락에서 주로 훼손 대상으로 선택된 반면, 저장용기는 음료나 음식을 담

48 이현숙, 「백제 地鎮具의 현황과 의미」, 『마한백제문화』 40(2022), 32쪽.

아 매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우물과 무덤에서 주로 선택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훼기와 결합된 절차 및 의도 역시 맥락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유적의 위상과 성격에 따른 차이로 판단되었다. 국가적 제사나 왕실의 매장 의례에서는 공음공식, 봉헌, 소각, 동물 희생 등 복합적인 의례 절차와 결합하여, 의례의 종결과 전환, 벽사, 참여자 간 관계 형성, 파시 등 여러 의도와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국가 중심부에서 벗어난 맥락에서는 복합적 의례의 직접적인 증거가 뚜렷하지 않으며, 유구의 사용 종료와 부정 차단을 위한 종결 의례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처럼 본고는 경기지역 유적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백제 한성기 훼기가 시행된 맥락의 특징을 파악하고, 개별 유적의 출토 양상을 종합함으로써 맥락에 따라 훼기 토기의 선택, 연관된 절차, 훼기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백제 한성기의 훼기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맥락에서 주로 나타나는 제한적 행위인 동시에, 다양한 공간에서 차별적인 절차와 의도에 따라 수행된 복합적 행위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본 연구는 훼기의 의도성을 판별하기 어려운 자료 자체의 특징으로 인해 일부 자료의 누락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유기물 자료가 제한적이어서 공음공식 등 구체적인 의례 절차를 명확히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 개별 토기에 대한 정밀 관찰과 유기물 분석 자료의 축적을 통해 이러한 해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 겨레문화유산연구원 외, 『의왕 내손동 백제 유적』, 2024.
- 경기도박물관, 『소근산성: 학술 발굴조사 보고서』, 2012.
- 경기문화재연구원, 『오산 수청동 백제 분묘군 IV』, 2012.
- 고려문화재연구원, 『하남 감일동 유적』, 2022.
- 권오영·한지선, 「의왕시 일괄 출토 백제토기에 대한 관찰」, 『吉城里土城』, 한신대학교 박물관, 2003, 161~175쪽.
- 기전문화재연구원, 『漣川 鶴谷里 積石塚: 漣川 鶴谷堤 改修工事地域 内 發掘調査 報告書』, 2004.
- 기전문화재연구원, 『오산 수청동유적-우미아파트 건설에 따른 발굴조사 보고서』, 2006.
- 기전문화재연구원, 『용인 청덕리 백제 수혈유구』, 2006.
- 기전문화재연구원, 『화성 석우리 먹실유적』, 2007.
- 기전문화재연구원, 『용인 마북동 취락유적』, 2009.
- 기전문화재연구원, 『용인 서천동유적』, 2011.
- 기호문화재연구원, 『오산 탑동·두곡동 유적』, 2013.
- 몽촌토성발굴조사단, 『몽촌토성발굴조사보고』, 1985.
- 서울대학교 박물관, 『석촌동고분군 III』, 2015.
- 서울대학교 박물관, 『몽촌토성 새롭게 다시 보고하다』, 2023.
- 중부고고학연구소, 『서울 방이동 유적』, 2026.
- 한성백제박물관, 『서울 석촌동 고분군 I』, 2019.
- 한성백제박물관, 『서울 석촌동 고분군 II』, 2020.
- 한성백제박물관, 『서울 석촌동 고분군 III』, 2021.
- 한성백제박물관, 『서울 석촌동 고분군 IV』, 2022.
- 한성백제박물관, 『서울 석촌동 고분군 V』, 2023.
- 한성백제박물관, 『서울 석촌동 고분군 VI』, 2024.
- 한신대학교 박물관, 『풍납토성 IV: 경당지구 9호 유구에 대한 발굴보고서』, 2004.
- 한신대학교 박물관, 『풍납토성 VII: 경당지구 상층 폐기장 유적에 대한 발굴보고서』, 2006.
- 한신대학교 박물관, 『풍납토성 XVII: 경당지구 206호 유구에 대한 보고』, 2015.

2. 논저

- 고은별, 「중부지방 원삼국~삼국시대 동물희생의례의 지역적 특징」, 『고고학』 19-1, 2020, 45~70쪽.

- 권오영, 「성스러운 우물의 제사: 풍납토성 경당지구 206호 유구의 성격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11-2, 2008, 211~242쪽.
- 권용대, 「慶州·蔚山地域의 三國時代 毀損土器 研究」, 『호서고고학』 16, 2007, 83~108쪽.
- 김왕국, 「백제 한성기 저장시설 확산의 동인: 단면 플라스크형 저장수혈을 중심으로」, 『百濟研究』 63, 2016, 125~158쪽.
- 김창석, 「한성기 백제의 국가제사 체계와 변화 양상: 풍납토성 경당지구 44호·9호 유구의 성격 검토를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22, 2004, 1~28쪽.
- 노미선·강병선, 「영상강유역 호형토기의 조업과 제기 연구: 광주 평동유적 분구묘 출토품을 중심으로」, 『야외고고학』 14, 2012, 39~62쪽.
- 박신영·성정용, 「河南 甘一洞 古墳群의 石室構造와 被葬者集團의 性格」, 『고고학』 19-1, 2020, 71~102쪽.
- 안승모, 「고고학으로 본 복숭아 재배와 의례적 기능」, 『馬韓·百濟文化』 26, 2015, 5~44쪽.
- 이성주, 「저장용 대형 단경호의 생산과 한성백제기의 정치경제」, 『한국상고사학보』 86, 2014, 53~82쪽.
- 이현숙, 「백제 地鎮具의 현황과 의미」, 『마한백제문화』 40, 2022, 22~51쪽.
- 이희경, 「백제 한성기 플라스크형 수혈의 확산과 저장 방식의 변화」, 『백제학보』 44, 2023, 87~116쪽.
- 이희경, 「고대 한반도 매장 의례의 식물 이용: 낙랑과 영남지방의 무덤을 중심으로」, 『한국상고사학보』 127, 2025, 89~121쪽.
- 정수옥, 「백제 한성기 국가의례와 의례용기 그리고 음식의 공헌-풍납토성 출토 유물을 중심으로」, 『백제문화』 63, 2020, 5~30쪽.
- 정치영, 「석촌동 1호분 북쪽 연접적석총의 구조와 성격」, 『고고학』 20-2, 2021, 67~89쪽.
- Budka, J., "Egyptian Impact on Pot-Breaking Ceremonies at el-Kurru? A Re-examination," in Anderson, J. R. & Welsby, D. A. (eds.), *The Fourth Cataract and Beyond: Proceedings of the 12th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Nubian Studies*, Leuven; Paris; Walpole, MA: Peeters, 2014, pp. 641~654.
- Chapman, J., *Fragmentation in Archaeology: People, Places and Broken Objects in the Prehistory of South Eastern Europe*, London/New York: Routledge, 2000.
- Chapman, J., Gaydarska, B. & Slavchev, V. "The Life Histories of Spondylus Shell Rings from the Varna I Eneolithic Cemetery (Northeast Bulgaria): Transformation, Revelation, Fragmentation and Deposition," *Acta Musei Varnaensis*, Vol. 6, 2008, pp. 139~150.
- Dietler, M., "Theorizing the Feast: Rituals of Consumption, Commensal Politics, and Power in African Contexts," M. Dietler & B. Hayden (eds.), *Feasts: Archaeological and Ethnographic Perspectives on Food, Politics, and Power*, Washington, D. C.: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2001, pp. 65~114.

- Grinsell, L. V., "The Breaking of Objects as a Funerary Rite," *Folklore*, Vol. 72, No. 3, 1961, pp. 475~491.
- Lucero, L. J., "The Politics of Ritual: The Emergence of Classic Maya Rulers," *Current Anthropology*, Vol. 44, No. 4, 2003, pp. 523~558.
- Moreno, E. & Caria, M. "The Killed Vessels: Background, Modalities and Possible Meanings in the Prehispanic Cultures of Northwest Argentina," *Annals of Reviews and Research*, Vol. 11, No. 1, 2024, pp. 1~10.
- Nash, D. & deFrance, S. D. "Plotting Abandonment: Excavating a Ritual Deposit at the Wari Site of Cerro Baúl," *Journal of Anthropological Archaeology*, Vol. 53, 2019, pp. 112~132.
- Tsukamoto, K., "Reverential Abandonment: A Termination Ritual at the Ancient Maya Polity of El Palmar," *Antiquity*, Vol. 91, No. 360, 2017, pp. 1630~1646.

3. 기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훼기(毀器)」, 『국가유산 지식이음—한국고고학사전』, <https://portal.nrich.go.kr/kor/archeologyUsrList.do?menuIdx=567>.

References

1. Primary Sources

- Giho Cultural Heritage Research Institute, Osan Tap-dong and Dugok-dong Sites, 2013.
- Gijeon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Baekje Pit Features at Yongin Cheongdeok-ri, 2006.
- Gijeon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Hwaseong Seogu-ri Meoksil Site, 2007.
- Gijeon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Osan Sucheong-dong Site: Excavation Report for the Umi Apartment Construction Project, 2006.
- Gijeon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Yeoncheon Hakgok-ri Stone-Mound Tomb: Excavation Report on the Yeoncheon Hakgok Embankment Improvement Project Area, 2004.
- Gijeon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Yongin Mabuk-dong Settlement Site, 2009.
- Gijeon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Yongin Seoecheon-dong Site, 2011.
- Goryeo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Hanam Gamil-dong Site, 2022.
- Gyeonggi Cultural Heritage Research Institute, Osan Sucheong-dong Baekje Burial Complex IV, 2012.
- Gyeonggi Provincial Museum, Sogeunsanseong Fortress: Academic Excavation Report, 2012.
- Gyeong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et al., Baekje Site at Uiwang Naeson-dong, 2024.
- Han, Jisun & Kwon, Ohyoung, "Observations on the Baekje Pottery Assemblage from Uiwang," *Gilseong-ri Fortress*, Hanshin University Museum, 2003, pp. 161~175.
- Hanseong Baekje Museum, Seoul Seokchon-dong Tomb Complex I, 2019.
- Hanseong Baekje Museum, Seoul Seokchon-dong Tomb Complex II, 2020.
- Hanseong Baekje Museum, Seoul Seokchon-dong Tomb Complex III, 2021.
- Hanseong Baekje Museum, Seoul Seokchon-dong Tomb Complex IV, 2022.
- Hanseong Baekje Museum, Seoul Seokchon-dong Tomb Complex V, 2023.
- Hanseong Baekje Museum, Seoul Seokchon-dong Tomb Complex VI, 2024.
- Hanshin University Museum, Pungnapdoseong Fortress IV: Excavation Report on Feature No. 9 in the Gyeongdang District, 2004.
- Hanshin University Museum, Pungnapdoseong Fortress VII: Excavation Report on the Upper-Layer Disposal Area in the Gyeongdang District, 2006.
- Hanshin University Museum, Pungnapdoseong Fortress XVII: Report on Feature No. 206 in the Gyeongdang District, 2015.
- Jungbu Institute for Archaeology, Seoul Bangi-dong Site, 2026.
- Mongchontoseong Excavation Team, Excavation Report of Mongchontoseong Fortress, 1985.
-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 Mongchontoseong Fortress Revisited, 2023.
-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 Seokchon-dong Tomb Complex III, 2015.

2. Books and Journal Articles

- Ahn, Sungmo, "Archaeobotanical Remains of Peach in Korea and its Ritual Function," *MAHAN BAEKJE MUNHWA The Journal of Mahan-Baekje Culture Research Institute*, Vol. 26, 2015, pp. 5-44.
- Chong, Chiyong,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Connected Stone-mound Tomb in the Seokchon-dong Ancient Cemetery of Baekje," *Archaeology: Journal of the Jungbu Archaeological Society*, Vol. 20-2, 2021, pp. 67-89.

Gwon, Yongdae, “Study of the Damages Pottery from Old Tombs (the 5th Century AD) in Gyeongju and Ulsan,” *Hoseo Archaeology*, Vol. 16, 2007, pp. 83-108.

Jung, Suock, “National rites, ceremonial earthenware, and food contribution during the Hanseong period of Baekje,” *The Journal of Paekche Culture*, Vol. 63, 2020, pp. 5-30.

Kim, Changseok, “The State Ritual System and Its Change in the Hanseong(漢城) Period’s Paekje(百濟) - Focusing on the Examin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No. 44 and No. 9 Sites at Gyeongdang District of Pungnap Earthen Castle(風納土城),” *The Journal of Seoul Studies*, Vol. 22, 2004, pp. 1-28.

Kim, Wanggook, “Expansion Motive of Storage Facility in Hansung Period of Baekje: Focused on Flask-Shaped Cross-Sectional Storage Pit,” *The Journal of Baekje Research*, Vol. 63, 2016, pp. 125-158.

Ko, Eunbyul, “Regional Characteristics of the Animal Sacrificial Rituals of the Proto-Three Kingdoms to Three Kingdoms Period in the Central Region,” *Archaeology: Journal of the Jungbu Archaeological Society*, Vol. 19-1, 2020, pp. 45-70.

Kwon, Ohyoung, “The Ritual of Holy Well,” *Journal of Local History and Culture*, Vol. 11-2, 2008, pp. 211-242.

Lee, Huikyung, “A study on the changes in the storage patterns reflected in the spread of flask-shaped pit in the Hanseong Baekje period,” *Journal of Baekje Studies*, Vol. 44, 2023, pp. 87-116.

Lee, Huikyung, “Aspects of Plant Use in Burial Rituals on the Ancient Korean Peninsula: Focusing on the Tombs of Lelang and the ancient Yeongnam Region,” *Hanguk Sanggosa Hakbo*, Vol. 127, 2025, pp. 89-121.

Lee, Hyunsook, “The Present Conditions and Meaning of the ritual implements for the land-God(地鎮具) in Baekje,” *MAHAN BAEKJE MUNHWA The Journal of Mahan-Baekje Culture Research Institute*, Vol. 40, 2022, pp. 22-51.

Lee, Sungjoo, “The Production of Large Storage-Jars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Hanseong Baekje,” *Hanguk Sanggosa Hakbo*, Vol. 86, 2014, pp. 53-82.

Park, Shinyeong & Sung, Jeongyong, “The Character of the Buried People and the Stone Chamber Structure of the Gamil-dong Tombs in Hanam,” *Archaeology: Journal of the Jungbu Archaeological Society*, Vol. 19-1, 2020, pp. 71-102.

3. Other Sources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Destruction of Objects (毀器),” National Heritage Knowledge Portal: Dictionary of Korean Archaeology.

Table

- Table 1. Numbers of Pottery Vessels by Type and Patterns of Destruction from Features No. 9 and 31
- Table 2. Numbers of Destroyed Pottery Vessels from the Pottery Deposit in Well No. 206
- Table 3. Numbers of Pottery Vessels by Type and Patterns of Destruction from the Wooden Well at Bangi-dong

Table 4. Numbers of Destroyed Pottery Vessels by Type at Settlements with Flask-shaped Pits
Table 5. Numbers of Destroyed Pottery Vessels from the Seokchon-dong Tomb Complex

Figure

- Figure 1. Pottery Vessels from the Depositional Layer of Well No. 206
- Figure 2. Destroyed Pottery Vessels from Pit A-50
- Figure 3. Destroyed Pottery Vessels from Pit No. 60 at the Seogu-ri Meoksil Site
- Figure 4. Destroyed Flat-bottomed Jar from Stone-Mound Tomb No. 8
- Figure 5. Numbers of Destroyed Pottery Vessels by Vessel Category, Site, and Depositional Context